

인간이해

김 수 지

(연대 간호대학)

인간이해라는 제목을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인간본질면을 이해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인간이해의 방법에 관계되는 측면이다. 그런데 인간을 다루는 간호학문 및 간호직을 연관시켜 볼때 이 두가지 측면의 인간이해는 모두 필요하며 따라서 중요하게 다루어 적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간의 건강증진, 질병회복 및 예방을 돕는 간호 본연의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그 과정에서 인간이 무엇이나 하는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가 철저해야 되겠고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타 학문에서 주장하는 인간본질에 대한 몇 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들의 주된 관점이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통합함으로써 간호학적인 인간본질을 확인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호학적인 인간관에 따라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되겠는지를 그 방법을 논함으로써 주어진 제목의 강의를 끝마치려 한다.

1.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

인간이 무엇이나 하는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는 그가 행하는 행위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간단히 소개하려는 인간본질에 대한 제 이론을 사실이나 또는 거짓이나에 관하여 논하기 보다는 그 주된 관점 및 목적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이 학설들이 어떻게 간호학과 연결되며 어떤 이론이 더 유용

한지를 평가해 볼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본다.

1) 타 학문적 견해

a) **Man, the Animal.** 이 학설에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동물적 존재 또는 생물적 존재로 간주한다. 생리적 본능 즉 Sexual Aggression이 그 인간의 행위 즉 사회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견해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중 특히 Freud는 그의 저서 『Civilization & Its Discontents』에서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항존(ever-present)하는 본능적인 강한 생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본능의 힘은 이성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러한 Sexual Aggression은 사회적인 제약이나 제한에 의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면 즉 Sexual 대상에 따라 행동이 일어나고 이 같은 행동유형이 반복됨에 따라 인격 형성이 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이론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적 또는, 생리적 존재라고 간주한다.

b) **Man, the Profit-Seeker.** 이 이론의 기본되는 가정은 인간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회적 보상(Social rewards)을 얻을려고 서로 상관, 관계, 행동하며 이러한 이익을 교환하는 결과로 사회관계의 형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교환이론과 상벌에 의한 심리학의 학습 이론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반사회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며 주로 돈과 물질이 사회적인 보상이라고 간주하고 무엇이든지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방법——적지 주고 많은 유익을 받으려는——으로 얻을려고 하며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관계를 갖거나 행위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인 과정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논제는 보상의 기준 및 요인 다시말하면, 무엇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보상의 기준이 되고 B라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나인데 이 면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c) **Man, the Symbol Interpreter:** 인간의 가장 핵심적이고 특이한 본질적 특성을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간주하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상징에 대한 해석을 중요시 하며 강조한다.

인간은 피상적인 반응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항상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대상에 대한 의미의 해석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문제는 무엇이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말하면 무엇때문에 또는 무엇에 의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지 대답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을 Symbol Interpreter 면에서 보는 이 이론 역시 인간의 중요한 특성을 제시하여 주었으나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d) **Man, the Noble:** 주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이 이론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매력적인, 고상한 존재라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질면에서 창조적이고 자연적이며 자아와 지성을 지니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인간을 성적충동에 의해 좌우되거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또는 어떤 의형적인 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편협적 존재라기 보다는 생리적, 안전, 사랑, 소속, 자기 존중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에 따라 생활

하는 고상한 존재로 본다.

그러나 이 이론 역시 인간 삶의 현상에 관계된 물질면만을 기술할 뿐 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

e) **Man, the Creature:**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이 말은 맛보고 경험하고 구현하는 등의 관계 개념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실체개념(가령 소유하는)이 아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있으며 (Emmanuel)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육체나 정신이 이러한 신의 형상이 내재하는 내면성 즉 우리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현존하는 인간으로 본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모든 사람은 피조된 목적과 뜻이 있어 창조되었으므로 모두 귀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며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생활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고 이렇게 생활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인간의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적충동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이것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언급한 인간본질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비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것을 알수 있다.

즉 인간의 본질면에서

1. 생리적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2.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본질과 사회환경의 요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존재하는가?
3. 인간이 능동적인 선택자(active chooser)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열마름이나 수동적인 반응자(Passive responder)인가? 그리고
4. 다른 동물과 얼마나 유사한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견해 질문	Man, the Animal	Man, the Profit-Seeker	Man, the Symbol Inter- preter	Man, the Noble	Man, the Creature
생리적 욕구 의 중요성	대단히 중요하다	있으며 중요하나 기본적인 본질은 아니다.	있으며. 중요하나 기본적인 본질은 아니다	있으며 중요하나 쉽게 극복하거나 억압억제 된다.	있으며 중요하나 어디까지나 창조자 의 뜻을 나타내는 실체이다.
인간과 환경 사이의 갈등	많으며 피할 수 없다	별로 중요하게 다 루지 않는다	별로 중요하게 다 루지 않는다.	존히 있으나 피할 수 있다. 즉 사회 가 인간의 기본욕 구를 얼마나 잘충 족시키느냐에 좌 우된다.	많다. 항상 있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인정 하고 순종하느냐에 좌우된다.
수동적인 반 응자	본래 수동적인 반 응자이다.	목적이나 결과를 추구하는 능동적 인 선택자이다.	스스로 대화하는 능동적인 해석자 이다.	목적이나 결과를 추구하는 능동적 인 선택자이다.	본래 수동적인 반 응자이다.
타 동물과의 유사성	다르기도 하고 같 기도 하다. 같은 생리적 욕구를 지 니지만 인간은 조 절할수 있는 독특 한 능력이 있다.	보상을 찾고 벌을 피하려는 면에서 유사하다.	다르다. 즉 인간 은 추상적인 상정 을 사용하고 해석 하는 독특한 능력 을 지닌다.	주로, 다르다. 타 동물도 자기 실현 을 한 수 있으나 인간은 그 가능성 이 특유하다.	본래 다르다. 인간 이 다른 동물을 지 배하고 통치하게 되 있다.

이 4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점을 간단히 비교
해 보면 별표 1과 같다.

2) 간호학적 견해

이상에서 다룬 인간본질에 대한 각 견해는 인
간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킬으로써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이
다루는 인간은 이러한 부분적인 면, 즉 생리적
측면만의, 심리적인 측면만의, 사회적인 측면만
의, 또는 영적측면만의 인간이 아니라 신체의
질화와 그로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따
라서 가족과 직장과 하는일, 또는 사랑하는 사
람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
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깊은 고민이나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져 불안 중에 무서워 할 수도 있으
며 또는 두려움없이 믿음과 소망중에 주어진 현
실을 수용하고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럴까? 바로 몸 정신 관계면에 근본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 원동력이 되는 궁극적 관심사가 다
르기 때문이다.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때문에 사는가? 라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깊이 관여하는 그러한 경험중에 있는 전
인적 존재를 우리는 다룬다.

그러므로 간호학적인 인간본질에 대한 이해는
생리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신학에서 다루는
부분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 모든 측면이 유기적
으로 통합된 독특한 존재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학이 종합과학 또는 응용
과학의 범주에 속하며 전 인간 상황이 바로 간
호학문의 주된 관심과 영역인 것이다.

간호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측면을 지닌 통합적인 유기체적 존
재로 간주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유기체적 인간
은 세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a) Synergism 역동성: 인간의 각 부분은 전체
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각 부
분의 합은 전체의 합보다 엄청나게 크다. 그러
면서도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지닌 역
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굉장한

가능성을 지닌 독특한, 어떤것과도 누구와도 바꾸거나 내치할 수 없는 각각 독특한 존재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그 나름대로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b) **Interaction, 상호작용** : 개방체(Open System)로서의 인간은 항상 각 부분간에 또는 전체로서 환경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영향을 끼치고 받고 하는 상호작용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과 환경간에 교류사건이 일어나고 한쪽의 도움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건이 생긴다.

c) **Change, 가변성** :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항상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항상 변화를 전체로 하며 성장 발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까?

2. 인간이해의 방법

1) 태도 및 자세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우선 이해하려는 태도 및 자세를 갖는것이 중요하다. 이해라는 영어(Understanding)의 원래 의미대로 우리의 태도나 자세가 이해하려는 상대방의 Under(밑)에 Stand(서야)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마음이란 단순한 심리상태라기 보다 궁극적인 관심사인 영적상태를 가르킨다.

상대방을 잘보거나 피상적으로 또는, 겉으로만 살핀다든지 알고보고 내려보고 위에서 거만하게 보려는 그러한 자세나 태도는 참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간호원이 인간이해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간호원의 자세나 태도가 상대방(Patient)의 Under에 Stand 해서 환자의 몸 뿐만 아니라 심리상태, 관계면 그리고 궁극적인 관심사인 그 밑 아주 깊은 차원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는 흔히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각각 나름대로 피조된 특별한 목

적과 뜻이 있어 창조되었으므로 모두 귀중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며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상호정신이라 한다.

2) 직접적인 만남

도올려는 그 대상인 인간과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만남을 갖는다. 직접적인 만남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a) 가까이 접촉한다.

집, 병원, 지역사회등 어디서나 전인간상황에서 전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한다. 단순히 몸에 몸을 뜨는, 몸의 일부 가령 투약하는 손과 환자의 손만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음, 생각, 감정, 행동, 관계, 의미, 표정, 시선등 전체를 가까이 접촉한다. 이 접촉시에는 마주보아야 한다. 높게 보거나 낮게 또는 슬금슬금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까이 접촉할때에 서로간에 말하고 듣는 사건 즉, 의사소통의 사건으로 진전이 된다. 다시말하면 나(간호원)와 너(환자)의 교류사건이 생긴다.

b) 질문한다.

도움을 주는 간호원측에서 먼저 질문을 한다. 이때는 반드시 개방식 질문을 해서 상대방의 전인적인 면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오도록 해야한다. 가령 "아파요?"하고 묻는 것보다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말씀좀 해 보시죠?"라고 질문하면 통증의 부위, 양상, 정도는 물론 고민, 걱정, 불안, 두려움등 통증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정보를 자세히 알므로써 결과적으로 더 바람직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질문할때 피상적으로 또는 슬판적으로 묻지 말고 진지하게 묻는것이 중요하다.

c) 경청한다.

일단 질문을 한 다음에는 환자의(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야 한다. 귀만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듣지 말고 시선, 표정, 자세, 생각 등 내 모든것을 집중해서 들리는 소리는 물론

인간이해

들리지 않는 의미, 소원까지 꿰뚫어 듣는 것이다. 가령 환자가 말을 하면서 자기 몸의 어떤 부위를 만지거나 손을 사용할때 그 부위가 불편하거나 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경청이란 바로 이런것까지를 포함한다.

경청할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반응(맞장구)을 하는것이 좋다. 가령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럴것군요!” “그래서요,” “어쩌련!” 등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듣고 수긍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좋다.

이러한 방법은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응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d) 문제를 확인한다.

이쯤되면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며 문제확인이 됨에 따라 도와주고 거들어주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3) 듣는 행위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면에서 앞의 단계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듣는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강제적이거나, 억지로 또는 어겨지로, 죽지 못해, 할수없이 듣는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흥이나고 신마음이 나서 기쁨마음으로 내 전체를 통한 실제의 듣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도울까? 듣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언어, 유사언어, 기호(문자), 대상(표정, 자세, 차림), 접촉(촉각) 그리고 실제행위인 행동 즉, Nursing technique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모두 사용해서 듣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듣는 행위가 훨씬 더 촉진되는데는 도움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자질 정도에 관계가 있다. 여기서 잠깐 간호원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간호원의 자질>

◎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야 한다.

◎ 친절해야 한다: 친절의 한계는 모든 용어, 의사소통이 상대방 중심이다.

◎ 재치감이 있어야 한다.

◎ 전강미가 있어야 한다.

◎ 포용성(관용)을 지녀야 한다.

◎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깊이(신체면만이 아니라 생각, 정서, 궁극적인 관심사, 가치이념, 신념 등), 넓게(자신의 성향, 성격, 정신, 리듬등), 높게(얕은차원, 높은이상, 항상 지금보다 끌어 올리려는 이상) 그리고 멀리(지금 당장뿐 아니라 앞으로 내일과 미래등)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와 관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알수 있을까?

나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령 본인은 지금 이 확성기를 사용할뿐 그 이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를 알려면 만든 사람에게 물으면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를 알려면 나를 만든 창조자에게 물으면 알게된다. 인간이 나(인간)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은 경험적으로 확실히 안다. 아이가 내 속에서 잉태되어 출산을 했지만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창조자에게 나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 두가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

첫째는, 나는 귀한 존재——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그러면서도 천하 어떤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이러한 존재인 나는 창조자의 사랑하는 대상자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내 자신이 성장해야 할점, 자라야 할점, 배워야 할점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나는 교만해 질 수가 없고 겸손히 배우고 고치고 수정하여 계속 성장하게 된다.

◎ 인간(나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실상 이 자질만 갖춘다면 앞에서 언급한 6가지 자질은 자연히 따라 갖추기 마련이다. 사랑은 오래참고(고린도전서 13:4),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게 되며 자기유익을 추구하고 성내며 악한것 옳지 못한것을 생각하게 된다. 사랑은 은유 즉, 정답고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랑은 모든것을 믿는 신뢰감의 기초가 되며 모든것을 바라는 가능성에 대한 긍정

적 태도이며 아무리 힘든것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듣는 행위가 훨씬 더 활발히 촉진되는 때는 듣는 행위의 시종(始終)이 도움을 받는 환자중심이어야 한다. 내 도움을 원하는 환자는 전인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람이다. 무대에선 연극배우가 시종 관객을 의식하고 관객을 위해서 관객중심으로 연기를 하듯 간호원은 심신, 사회, 영적측면을 지닌 환자를 의식하고 환자중심으로 이해할 때 진정한 도움을 주게 되며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 할 수 있다.

4) 결 과

인간인 간호원과 환자 사이의 도우는 관계에

서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직접 만나면 듣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는 전인적인 면에서 성장을 향한 변화가 오게 마련이다. 가령 병든 신체에 치유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위생습관(사회적인 면)이 바뀌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원초적인 것에 따라 양질의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인간이해를 할 때 간호원은 신체, 심리, 사회, 영적측면에 걸쳐 전인적인 자신을 사용하며 전인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하여 간호원은 제공자(Provider), 조정자(Coordinator), 촉진자(Facilitator), 그리고 변화시도자(Change Agent)의 역할을 신바람이 나서 거뜬히 수행하게 될 수 있다. 〰

<9페이지에서 계속>

슬프고 무력하고 공허하고 고통하며 고독한 사람들, 그래서 인내하고 투병할 의지를 잃은 사람들의 삶에 잠시 치료적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빈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뢰를, 무지하고 어리석은 젊은이에게 지혜로운 삶을,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고통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의미를, 허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외롭고 슬픈이에게 위로와 사랑을, 고통하는 이들에게 투병의 의지를, 방향없이 방황하고 공허한 사람들에게 구심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일깨우고 지원해줌으로서 환자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풍요로운 삶의 열매를 함께 나눌수있는 축복되고 도전받는 위치에선 책임과 의무를 예술적 경지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1. Haber, Judith, etal, Comprehensive Psychiatric Nutrsing, Mc, Graw-Hill Book Co, New York, 1978
2. The Nursing Theories Conference Group, Nuring Theories; The Base for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Englewood cliffs: Prantice-Hall Inc., 1980)
3. Sundeen, Stuart, Rankin and Cohen, Nure-Client-Interaction: Implementing the Nursing process, (St. Louis Mosby 1976)
4. King, Imogene M. Toward a Theory for Nursing: General concepts of Human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1)